

# 귀농 지원금 받기 까다로워진다

## 농식품부,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교육체계 세분화 맞춤형 교육 제공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령별,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확산을 위해 올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

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목적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 15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전 점검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 접수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귀농창업 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귀농귀촌 교육 체계도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기초·중급·심화 등 단순히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2030 장농', '4050 전직', '60 은퇴농'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올해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재정기반이 약한 청년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는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을 개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非)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농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한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15일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농협주요소 전남협의회'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15일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다.

###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 최대

은행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2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3조2,000억원) 이후 최대였다.

개인사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은 64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밀어 올린 셈이다.

올해 1~2월 누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9,000억원 증가, 작년 같은 기간(3조원)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항공, 상반기 직원 공채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올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직 공채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확대, 새 사업 진행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직 사원 180여명을 공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채는 정비사와 객실승무원 등 물론 운항관리, 램프운영, 승무원 편조, 운항표준, 운송기획, 공항 서비스, 케이터링, 구매, 인사, 노무, IT기획, 운임기획, 해외영업, 마케팅 등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가장 많이 뽑는 부문은 객실승무원으로 100명 안팎이며, 항공기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도 40여명 선발한다.

객실승무원 선발을 위해서는 일반채용 외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인 '제주캐스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2016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제주캐스팅'은 학력과 나이, 기타 자격사항 등 조건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전형이다.

이번 공채 입사지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항공 채용홈페이지(recruit.jejuair.net)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공중 전화박스 똑똑해진다

미세먼지 모니터링부스 변신

공중전화박스가 미세먼지 모니터링 거점으로 변신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업체 그렉터는 효성ITX와 손잡고 KT링크스가 소유한 공중전화박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IoT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렉터는 효성ITX가 구축·운영하는 안심부스 무료 와이파이존에 공간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엘리엇 스마트에코'와 IoT 플랫폼 '인케이스링크' 등 스마트에코 미세먼지 IoT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렉터 미세먼지 IoT 솔루션은 활동공간 내 지름 1.0μm의 초미세먼지(PM1.0)까지 분석, 공기질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엣지컴퓨팅 기반의 솔루션이다.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미세먼지가 악화되면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 금호고속, 광주~다압 직통버스 운행 광양매화축제 기간동안 하루 4회 왕복

금호고속이 '2018 광양매화축제' 기간 동안인 17일부터 25일까지 하루 4회씩 광주와 광양, 다압(행사장)을 잇는 직통버스를 운행한다.

관람객이 급증하는 주말에는 고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시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광주 → 광양경유 → 다압' 노선 버스의 출발 시간은 8시50분, 9시50분, 10시50분, 12시50분이며, '다압 → 광양경유 → 광주' 노선 버스는 오후 1시, 2시, 3시, 4시에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광주 ~ 다압'이 1시간50

분, '광양 ~ 다압'은 40분이다.

버스 티켓은 현지 매표소 및 버스타고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운행요금은 '광주 ~ 다압' 9,800원, '광양 ~ 다압'은 3,100원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봄 축제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특별 노선을 개통했다"며 "안전 운행과 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 14일 '백설기 데이'를 맞아 박태선 본부장, 유해근 영업본부장, 안종팔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설기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 “우리 쌀로 빛은 백설기 드세요”

### 전남농협, '백설기 데이' 나눔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4일 백설기 데이를 맞아 박태선 본부장, 유해근 영업본부장, 안종팔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 도교육청, 농협은행 전남영업부에서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백설기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우리지역 쌀로 만든 백설기 떡 1,500개와 우리 우유를 준비해 사랑 대신 우리의 전통 간식인 떡을 나누

어 먹었다.

함께 한 직원과 고객들은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통 쌀 가공식품 애용을 다짐했다.

백설기 데이는 '하얀 쌀로 빛이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인 백설기 떡을 선물함으로써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우리 쌀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사랑을 선물하는

상업적인 데이 마케팅을 대신하고 있다.

박태선 본부장은 “국민들의 식생활 다양화와 대체식품 소비 증가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산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가족 친지 및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백설기의 날 의미를 새기고 국민 쌀 소비가 증대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aT,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역본부서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3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5년(2년 거쳐 3년 분할 상환)이고, 금리는 고정금리(2~3%)와 변동금리(6개월 마다 변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형동 기자

## 창립 50돌 광주은행 '특판예금' 판매 15일부터 50일간 최대 연 2.35% 우대금리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5일부터 5월 3일까지 50일간 최대 연 2.3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고객감사 특판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며, 총 판매한도는 2,000억원으로 기간 중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 예정이다.

이번 고객감사 특판예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추가로 연 0.35%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2.35%의 특별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신규가입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 광주은행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가입일 이전 3개월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거래가 없는 고객 포함)의 경우 연 0.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신규고객 및 주거래 고객 모시기의 일환으로 이번 특판정기예금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교육 전남정보진흥원, 스마트창작터 교육생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한 스마트창작터 무료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전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앱/웹·SW·콘텐츠·ICT융합 등 지식서비스 분야 ▲체험형 창업실습교육 ▲이템 시장검증 ▲사업화지원 총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1단계 체험형 창업실습교육은 스스로 학습하는 온라인 창업교육과 킥오프-비즈니스모델 구체화 프로그램, 전문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오프라인 교육으로 구성된다.

2단계 아이템 시장검증 과정은 1단계 과정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이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잠재고객 반응을 조사하는 등 사업모델을 검증해 보는 과정으로 우수 교육생 선정시 최대 5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템 시장검증 우수팀으로 선정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사업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제공, 투자유치 및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등의 추가혜택도 주어진다.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를 참조하거나 창업지원팀(061-280-7493)으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유형동 기자



## KT, 데이터 3.3배 늘린 요금제 출시 'Y데이터박스' 데이터 선물하기 등 제공

KT(대표 황창규)는 약정 없이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는 자급단말 구매 고객이나 중고단말 이용 고객 등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요를 겨냥했다. 저

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대비 월 데이터 제공량이 3.3배 향상된 1GB를 제공하고, 무약정 38.3 요금제에서는 2.5배 향상된 2.5GB를 제공한다.

KT는 또 KT 고객 간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전용

앱 서비스 'Y데이터박스'를 출시했다.

Y데이터박스는 특정한 1명을 지정해 데이터를 나눠주는 '데이터 선물하기',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최대 10명에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데이틱', 내 데이터 현황 확인과 데이터 관련 특화 서비스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한다.

KT는 “기존 20% 선택약정 고객이 25%로 재약정 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 상관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고객의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유형동 기자